

■ 고사성어 ⑫



문전작라 (門前雀羅)

문 앞에 새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권세를 잃거나 빈천 (貧賤)해지면 문 앞 (밖)에 새그물을 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다는 말.

전한 7대 황제인 무제 (武帝) 때 급암 (汲黯)과 정당시 (鄭當時)라는 두 현신 (賢臣)이 있었다. 그들은 한때 각기 구경 (九卿:9개 부처의 각 으뜸 벼슬)의 지위에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둘 다 개성이 강한 탓에 좌천 · 면직 · 재등용을 피할이하다가 급암은 회양태수 (淮陽太守)를 끝으로 벼슬을 마쳤다. 이들이 각기 현직에 있을 때에는

방문객이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면직되자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어 사마천 (司馬遷)은 <사기 (史記)><급정열전 (汲鄭列傳)>에서 이렇게 덧붙여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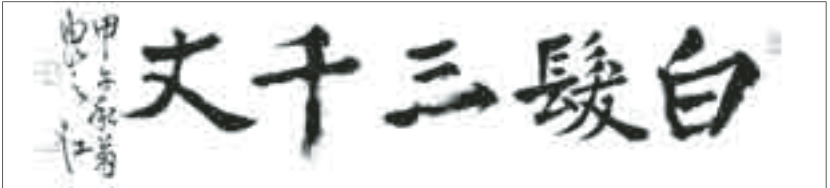
“급암과 정당시 정도의 현인이라도 세력이 있으면 빈객 (賓客)이 열 배로 늘어나지만 세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적공 (翟公)의 경우는 이렇다. 적공이 정위 (廷尉)가 되자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



由江 權永世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탁-
·개인전4회,초대그룹전2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를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가 면직되자 빈객은 금세 발길을 끊었다. 집 안팎이 어찌나 한산한지 ‘문 앞 (밖)에 새그물을 쳐 놓을 수 있을 정도 [門外可設雀羅]’였다. 얼마 후 적공은 다시 정위가 되었다. 빈객들이 몰려들자 적공은 대문에 이렇게 써 붙였다.

한번 죽고 한번 삶에 곧 사림의 정을 알고
[一死一生 卽知交情 (일사일생 죽지교정)]
한번 가난하고 한번 부함에 곧 사림의 태도를 알며
[一貧一富 卽知交態 (일빈일부 죽지교태)]
한번 귀하고 한번 천함에 곧 사림의 정은 나타내
[一貴一賤 卽見交情 (일귀일천 죽현교정)]



백발삼천장 (白髮三千丈)

흰 머리털의 길이가 삼천 길 [仞]이란 뜻으로, 중국 문학의 과장적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는 문구.

‘백발 삼천장’이란 우리나라 시인 이백 (李白)의 시 <추포가 (秋浦歌)> 17수 중 한 수인 오언절구 (五言絶句)에서 나

온 말이다.

흰 머리털이 (자라 어느새) 삼천 길
[白髮三千丈 (백발삼천장)]
근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길어졌네
[緣愁似箇長 (연수사계장)]
알지 못해라 밝은 거울 속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⑨

대추나무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해마다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과 선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도 하고,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며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방에서 성묘하는 것은 추석이 아니고 시월 시사와 해서 음력 10월중 좋은 날을 받아서 성묘를 해 왔는데, 근년에 와서 음력 10월에 하던 행사를 추석에 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상 음력 10월에는 너무 춥고 어떤 해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경우도 있어서 산소를 찾아가 폐척한 기후 조건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고, 또 제사에 참석하는 제관들이 대부분 직장따라 객지에 나가 있는데 음력 10월에는 모든 자손들이 함께 모이기가 힘이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는 계절적으로도 좋고 휴일로도 정해져 있으니 일가 친척 모두 모이기 좋아, 이날을 택해서 성묘하는 풍습이 성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휘영청 달 밝은 한가위날 밤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일가 친척들이 모두 고향에 모여, 그간 지내온 이야기 기량 살아온 자랑이랑 늘어 놓으면서 핵곡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며 평소에 못다한 회포를 푸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미풍 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 위성이 달나라에 날아 가서, 달에 대한 신비와 신앙을 깨어버린 것은

좀 서운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가위날 크고 둥근 달을 보면 마음의 소망을 기원하고 싶은 것은 오래 전부터 지녀온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달을 보고 기원하면 달님이 내게 복을 준다기보다, 달에게까지 소망을 비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사 만물을 대하고 노력하면 그 소망이 무엇이든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님에게 간절히 소망을 빌면 역시 소망이 이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상이나 성묘가는 산길에서 붉게 익은 쫄대추를 보면 누구나 입에 넣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반은 대추 두 알만 먹어도 점심 요기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대추가 이토록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사를 드실 때 대추는 3알과 중 하나로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중요 과실임을 봐도, 우리 조상들이 대추를 오래 전부터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인 대추나무는 봄에 짙은 녹색을 띠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나무에 가시가 있으며 6월경에 황록색 꽃이 피어 가을이면 탐스러운 붉은 열매가 걸립니다.

이번 성묘 길에도 수줍은 듯 붉은 홍조를 띤 대추 열매가 나무에 푸짐



하게 달려 있는 것을 보고 한두 개 따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불러 온 우리 민요에,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애들아 애들아 주워라
어른아 어른아 뺏어라
애들아 애들아 물어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를 잘 음미해 보면 참 해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추가 떨어지면 아이가 잡고 그것을 어른이 힘으로 뺏으면 아이는 억울해 울고…….

참 재미있고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대추나무는 단단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와사중 (임과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추나무 고리로 입을 걸어서 묶어 두면 입이 바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가 단단하기가 여러 가지 목공예품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목탁, 불상, 가구 등의 공예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특히 버락을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새겨서 쓰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비싼 값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추나무는 물에 뜨는데, 버락맞은 대추나무는 물에 가라 앉는 것이 특색입니다.

대추씨도 무척 단단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아무지며 빈틈 없는 성질의 사람을 보고 대추씨 같다고도 합니다.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이며 약을 달일 때 대추 몇 알씩을 넣으라는 처방은 흔히 우리가 받아서 처방입니다.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좋아하는 사진



대학생 시절에는 좋아하는 사진을 벽에 걸어놓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연에게 인사였는데 그 중에서 돋보인 것이 오드리 햅번 (Audrey Hepburn)이었다. 그는 1928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하였으니 나보다 5년 연하이다. 한때는 네덜란드에서 발레를 공부하였고 1948년에 영화에 데뷔하였다. 나에게 감명을 준 영화에는 ‘로마의 휴일 (Roman Holidays)’, ‘전광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여러 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로마의 휴일’에 그레고리 팩과 함께 출연한 그의 모습은 청순하고 우아하여 인상적이었으며 한마디로 이승에서는 다시 보기는 힘든 사람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나는 큰딸 인택에게 ‘한국의 오드리 햅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다.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잉그리드 버그만 (Ingrid Bergman)이었다. 1915년스톡홀름 출생인 그는 도미하여 할리우드 스타로 명성을 날렸는데 험프리 보가트와 공연한 ‘카사블랑카’와 게리 쿠퍼와 공연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는 압권이었다. 나는 요사이도 이 두 편의 영화를 집에서 감상할 때가 더러 있다.

이 세상에 미녀도 많고 패남도 많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3대 미녀를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집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몇 번이고 언급하였다. 내가 말하는 미녀는 정신적 미녀를 말하는데 이 세 분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방에 걸려 있는 것은 이 세 분 중 집사람의 사진 뿐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또래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사진 걸어두기’ 취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인 여우는 물론이고 이름 있는 남자 명우들이 우상시 되었던 것이다.

더 나가서 많은 배우들의 사진을 스크랩하여 사진첩으로 만드는 취미도 유행하였었다. 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잡지 저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오래내어 사진첩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들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자연 폐기된 것만은 확실하다.

젊은 시절에는 나름대로 사진 수집이 유행하였지만 어찌된 셈인지 나의 경우에는 보통학교·중학교·대학 예과·대학의 졸업앨범이 없었다.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데 우리 동기들은 이 분야에 무관심하였던 것 같다. 친한 교우들끼리 모여서 찍은 그룹사진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2000년 5월에 집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그 많은 앨범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사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처리비용을 주어가면서… 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전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훈장을 포함하여서 상장까지도 그렇게 하였다. 후에 박물관 관계인사로부터, 제일 값진 것이 앨범이니 앨범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일은 요사이도 후회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도 떼어낸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는 나의 인생 80年’을 간행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책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직 하나뿐인 사진첩인데 나의 8순 기념이기도 하지만 집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 첨부된 외증손주 진오 (津梧)·재이 (材怡)·경오 (經梧)의 사진은 지난 11월 2일부터 수 일 간 중국 베이징 (北京)을 여행하였던 둘째 딸 성택 내외가 선물로 준 중국 모자를 쓴 모습의 사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다. 지성이 넘쳐흐르는 진오의 사진은 들여다볼수록 마음에 든다. 진오만큼 다재다능한 어린이를 나는 만난 일이 없다. 내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 가게 되어 있는 진오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한글은 깨친 지 오래되었고 영어·중국어도 능란하게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일요일 아침에는 축구학교에 가서 축구를 한다. 가끔 골을 넣기도 한다. 토요일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다. 진오의 그림은 천재적이다. 나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꼭 그림을 그려오는데 어린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서 놀랍다.

재이도 유치원에 다닌다. 재이는 발레도 배우고 있으며 어린이로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이의 별명은 ‘예쁜 공주’이다. 나의 어머니 모습을 닮고 있는 까닭에 재이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경오는 진오에 비하면 야성이 강한 쪽이다. 어린이집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의 남다른 점이 좋다.

세 외증손주의 사진이 참으로 마음에 든다. 이제까지 보아온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다. 2년 전에 찍은 증손주들의 사진이 성복동 집 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취미인데 중국 모자를 쓴 사진들이 더욱 좋아 보인다.



신간안내

운산 권혁세 회장

약용 동·식물 실용동의보감 발간

대체의학, 약용식물학 분야로 사단법인 대한명인회로 부터 (2012. 8. 31) 한국의 명인, 대한명인 인정서를 받은 운산 권혁세회장이 지난 5월20일 학술편수관 (刊)으로 [약용동·식물 실용동의보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 ‘익생양술대전’의 응용 요법들을 누구나 쉽게 실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해 도감으로 엮은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천연약재의 효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순기능적 응용요법 및 그 조제법들을 망라했다.

수룩한 각종 주침 (약술), 탕전, 약차, 식이요법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전수 발전되어 온 전통의학의 정수라 할 만한 것들이며 이에 그 간의 필자의 경험과 연구로 얻은 비방들을 더했음을 밝혔다.

또한 장일무씨 (前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 석좌교수)는 이 책의 추천의 글로 각종 응용치료법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용화를 꾀해 엮은 것으로서 저자가 필생에 걸쳐 조사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사진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장구한 세월의 지혜와 터득이 녹아있는 전통

적 응용요법의 집대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 향후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 가치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힘든 과정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작을 창출한 저자의 노고와 학문적 탐구열에 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세회장은 단국대 정치경제학과를 3년 중퇴하고 한국화약입사 등 경인 화학장업, 중앙제약 상무제직중에 약리학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50년간을 집념을 펼쳐 민간요법을 연구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현재 한국민간요법연구회 회장으로서 민간요법 8500가지를 집대성한 인사로 유명한바, 수천년간 전래해온 임상실험을 통한 우수한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400여가지의 치료제를 개발한 민간요법 박사다. 1997년 「풀이 만병을 이긴다」등 10여권에 저서를 발간하여 전통적인 병치료의 민간요법 보급에 정열을 불태우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이미 민간요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으므로 생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주)익생회장으로서 3000여종의 약초와 민간요법 연구,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고 있

이달의 시

목련

권순채
(향토연구가)

임 다진 나뭇가지에
하늘 향해 뻗한자루 달려
하얀물감을 적시어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리면
하얀꽃으로 피어난다

깁따를 나뭇가지에 붓이달리어
자춧빛 물감을 적시어
파아란 도화지에 실을 하려는
붉은 빛 꽃이 피어난다

으며 고혈압 치료제 등 36개 제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기능성식품 112종 (36종 제품화하여 판매중) 기능성 주류 150여종 기타를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 ①5000역사의 전승의학인 민간요법의 성문화작업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사업) ② 약초 및 민간요법의 제품화작업 ③약초랜드화 작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正獻公 鷄林府院大君 王煦先祖秋享祭 案内

民統線내(長端) 正獻公의 秋享祭와 密直公 王重貴(十五世), 府尹公 諱 肅(十六世), 執義公 諱 嚴(十六世), 左尹公 諱 循(十七世), 花山府院君 諱 復(十七世), 直長公 諱 得(十七世), 知敦寧府事公 諱 格(十八世), 禮參公 諱 至(十八世), 主簿公 諱 永翬(十九世), 선조님의 추향제를 하기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례 바랍니다.

- △ 일 시 : 2014년 10월 12일(음 9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 △ 교 통 편 :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전진교 광장에 오전 9시30분까지 도착요
-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에서 오전 7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예정(서울 참례민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접수마감 : 2014년 9월 30일
- △ 회 비 : 1만원(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 참제자는 필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전세버스를 이용코저 하시는 중원회는 접수마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연 락 처 : 회장 권준식 (02)932-6267, 010-7517-6267 사무처장 권석원 011-289-3856

2014. 10. 1

安東權氏 正獻公派宗中 會長 權 俊 植

창화공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諱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손은 물론 방손 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 일 자 : 2014년 10월 26일(넷째 일요일) 12시
- 교통편 :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서 9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 그밖에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실 분은 파주시 임진각 북진교(리비교)광장에 10시30분까지 도착하실 것
- 지침물 : 주민등록증 지참
- 연락처 : 창화공 종회장 권병선(02)957-8822, 010-5273-7475

2014. 10. 1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 병 선